

장애·국적 뛰어 넘어 한마음으로

日 중증장애인극단 '쇼난 카메구미' 한국장애인들과 공연

일본의 중증장애인들로 구성된 극단 '쇼난 카메구미'가 한국의 장애인들과 하나되는 감동의 무대를 갖는다.

(사한나래문화재단(이사장 심산) 초청으로 마련된 이번 무대는 일본의 '쇼난 카메구미' 극단의 팬터마임극과 한국 천마재활원의 '천마의 참울림' 사물놀이팀이 장애와 국적을 뛰어 넘어 마음을 나누는 무대를 선보인다. 8월 21일 오후 7시 부산 금정문화회관(051-519-4081) 대극장에서 막을 올리는 제 1회 한·일 장애우 협동공연 '수다쟁이들의 아름다운 우정'이 그것.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중증장애인들이 펼쳐 보이는 팬터마임극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일본의 장애우들이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무대여서 이번 공연에 출리는 관심이 날마다. 특히 몸의 움직임만으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일본 극단 '쇼난 카메구미'의 이색적인 무대가 눈길을 끈다.

21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사물놀이·팬터마임 등 펼쳐

사찰 참배하며 우정의 시간도

'거북이조'라는 뜻의 '쇼난 카메구미' 극단은 1980년 '히라즈카 양화학교'가속사 팬터마임 동우회'를 모체로 만들어진 팬터마임극단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거나 누워지내는 이들이 4명이나 있다. 이처럼 배우 대부분이 중증장애인들이지만 장애인들의 문화 활동에 대한 관심을 극복하고 이어온 이들의 오랜 '몸짓 예술'은 일본에서도 출연요청이 잇따를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번 공연에선 '장님 여자



일본 중증장애인들로 구성된 '쇼난 카메구미' 극단의 공연 장면.

악사(12분) '불(14분)' 등 6편의 팬터마임극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을 위해 예술감독 하루타 노리히로씨를 비롯 조명 기술자, 배우 등 26명이 20-23일 한국에 머물게 되며 한국의 장애우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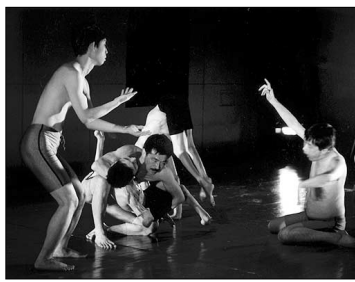
1996년 6명의 천마가족들로 구성된 천마재활원 '천마의 참울림'의 사물놀이 공연도 이번 공연에서 놓칠 수 없는 무대. 2002년 부산 아태장애인 경기대회 개막식, 문화행사 공연과 부산아동청소년회관에서 비장애인과 겨뤄 특별상을 수상한 이력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의 가락과 흥을 전하는 최고의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밖에도 심산 스님의 여는 무대 '영상과 소리의 만남'과 부산 불교법사 불광합창단, 천마재활원 원생들

이 낭독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수화노래, 동명정보대 '참울림' 사물놀이 동아리 등이 찬조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들이 한 무대에서 장애를 극복한 최초의 무대라는 의미 외에도 소책자마을 원생 100여명, 천마재활원 원생 96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 후에는 일본 장애우와 원주 소책자마을 장애우가 함께 '천마의 참울림'을 공연할 예정이다. (051)508-0345

이 낭독하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수화노래, 동명정보대 '참울림' 사물놀이 동아리 등이 찬조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들이 한 무대에서 장애를 극복한 최초의 무대라는 의미 외에도 소책자마을 원생 100여명, 천마재활원 원생 96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 후에는 일본 장애우와 원주 소책자마을 장애우가 함께 '천마의 참울림'을 공연할 예정이다. (051)508-0345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이번 공연은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들이 한 무대에서 장애를 극복한 최초의 무대라는 의미 외에도 소책자마을 원생 100여명, 천마재활원 원생 96명이 함께 공연을 관람하고, 공연 후에는 일본 장애우와 원주 소책자마을 장애우가 함께 '천마의 참울림'을 공연할 예정이다. (051)508-0345

석굴암 바둑대회 中 첫승

구리 7단 '흑불계승'

8월 10일 경주 석굴암에서 한국과 중국의 바둑 최강자들간의 우위를 결정하는 '제 8회 바가스배 한중 바둑 친원전' (사진) 제1국 대결이 펼쳐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이어진 한국 친원위 보유자 최철환 8단과 중국

친원위 보유자 구리(古力) 7단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는 불교사 부주지 권우, 승가대학 학장 덕민, 선원장 종우 스님 등 스님과 바둑을 좋아하는 경주지역 기관장, 지역 바둑 애호가 등 40여명이 지켜 본 가운데 '흑불계승'으로 중국 구리 7단이 승리했다.

한중 바둑 친원전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친원전 우승자간의 국제 교류전으로 매년



상호 방문 형식으로 개최되는데, 사찰에서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동산불교경전대학원 신입생 모집

과 목	요 일	개설경전	교 수
불교학과 (정규, 통신 각30명)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법화경(4)	박 종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해심밀경(1)	표주스님
능엄경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엄경 보경소(5)	송찬우
근본불교학과 (주간, 통신 각20명)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근본불교(10) (수행론 구차계명)	최봉수

모집인원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불교대학(영구) 이수자 • 반명합반 사전 3강 •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 매주 월·화요일 오후 7시(불교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능엄경) •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3. 개강일시 불 교 학 과 2004년 9월 6일(월) 오후 7시
능 엄 경 학 과 2004년 9월 7일(화) 오후 2시
근 본 불 교 학 과 2004년 9월 9일(목) 오후 4시

4. 입 학 금 이십만원

5. 특 전 졸업자는 법사자격 수여

6. 원 서 문 의 교 부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동산불교대학(경전)대학원

2004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

불교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 정규과정(2년)

실습반: 무진스님	이론반: 심민춘스님
전통의식작법 실습	전통의식작법 이론
- 야간과정(1년), 주간과정(1년)

지도법사: 양성도(야간), 문준승(주간)
예경의식·현공의식·사다림(매장/화장)·천도의식
- 바라·천도과정(2년)

지도법사: 인각스님
요잡바라·천수바라·나비춤·전통천도작법 교육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2년) • 바라반 30명(2년) • 주간반 20명(1년) • 야간반 20명(1년)	• 한글불교 의식 회양자 •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합반 사전 3강	• 매주 토요일(정규반)오후 1:00 ~ 4:00 • 매주 목요일(야간반)오후 7:00 ~ 9:00 • 매주 금요일(바라반)오후 3:00

3. 개강일시 9월 11일(토) 오후 1시(정규반)
9월 8일(수) 오후 7시(야간반) / 9월 9일(목)주간반
9월 10일(금) 오후 3시(바라반)

4. 입 학 금 일십만원

5. 원 서 교 부 및 접 수 본 교육원 사무국 : 서울 중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6. 특 전 교육원 과정 수료자는 동산불교의식법사 수여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하늘 천, 땅 지 '한자야 놀자'

은하사 한문학당 개설 일요 특별법회로 상설화

'달마야 놀자' 영화로 잘 알려진 김해 은하사주지 혜진. 8월 11일 오후 4시 은하사 보제루에서 아이들의 한문 읽는 소리가 들려왔다.(사진)가사 장삼까지 수한 혜진 스님이 한문을 가르치고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 7명이 앉은뱅이 책상에 앉아 소리 높여 한자를 따라 읽고 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은하사에서 처음으로 마련한 한문학당은 수업에 듣는 아이들의 수가 적지만 수업분위기는 진지하기만 하다.

이날 수업에 사용된 교재는 삼강오륜(三綱五倫) 화랑오계(花郎五戒), 주자심회훈(朱子十悔訓), 어린이 오계 등. 제법 어려운 한자가 많지만 아이들은 힘들어하는 내색



도 없이 즐거운 표정이다.

한문학당이긴 하지만 한문만 가르치는 건 아니다. 첫날 제일 처음 배운 것은 삼배하는 법.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신발 정리를 하는 무언의 약속도 있었다. 은하사는 한문학당을 '부모와 함께 배우는 수심보경' 등 일요일 특별법회로 상설화 할 예정이다. 겨울방학엔 어른들과 아이들 과제로 각각 개설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다.

천미희 기자

"고즈넉한 산사서 詩 한수 좋았어"

직지사 '여름 시인학교' 음악회·문화강좌 등 다채

"우리는 모두 멀리 우주의 어느 별에서 추방되어 온 외계인이랍니다. 손바닥 안에는 자신이 어느 별에서 무슨 일을 하던 사 람인지가 써 있대요."

여름밤 직지사에서는 밤늦도록 시(詩)적인 대화가 오갔다. 8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아름다운 우리 시 대 축제 '제2회 직지사 여름 시인학교'에는 50여명의 시인을 포함한 170여명의 예비 문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우리시의 아름다움과 멋을 알리기 위한 '시인학교'를 중심으로 '우리 시 백일장' '산사음악회' '우리 시 암송 경연대회' 등의 영역으로 특성화돼 축제형식으로 펼쳐졌다.



김주석, 문무학 등 국내 유명 시인들이 참여한 문화강좌를 시작으로 막을 연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산사음악회(사진)와 뒤편이.

출산의 우리 시 노래패 '푸른고래'가 우리 시조에 곡을 붙인 우리 시 노래 10여 곡을 선보였고, 참가자들이 참가한 우리 시조 암송 대회가 처음으로 열려 관심을 끌었다. 자리를 옮겨 직지사 인근 민박촌에서 밤늦도록 이어진 뒤편이 시간에는 시인과 일반인들의 대화가 마련됐다.

배지선 기자

도덕암 모과나무 보호수 지정

칠곡군 동명면 도덕암에 있는 모과나무(사진)가 7월 29일 경상북도로부터 보호수로 지정됐다.

이번에 보호수로 지정된 모과나무는 높이(수고)가 10m, 흉고직경(가슴부분의 직경)이 2m, 수관직경(나무가지가 뻗은 폭)이 무려 8m에 이르는 거목으로 수령은 정확하지 않으나 200년에서 많게는 800년으로 추정된다. 마구잡이로 실려온 주변 축대 등으로 정상적 성장이 불가능했던 모과나무는 도덕암 주지 범광 스님의 보호수 지정을 위한 감정을 의뢰하면서 그 가치가 알려졌다.



천미희 기자

불교 위해 공심의 마음으로

대구 경북 대불련 활동 본격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회는 8월 10일 대구 보현사 법당에서 보현사 주지 원일 스님과 동문 약 5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고문 및 임원 추대 및 위촉법회를 거행했다.

7월 15일 창립법회를 가진 대불련 대구경북지부 동문회는 이로써 지도법사 스님을 모시고 고문과 지도위원의 자문과 함께 임원단 활동이 본격화된다.

이날 대구경북지부 동문회는 지성(동화사주지), 종법(승가대총장), 성우(파계사주지), 원일(보현사주지), 현철(금강사주지), 중앙(보리사주지), 자현(부석사스님을 지도법사로 모시고, 이완재(영남대학교 명예교수), 남두회 변호사(법회 거사법 회장), 정상립(경북대 교수), 장영관(대구광역시 신도회장), 장병화, 문명대(동국대 교수), 김한식(경북대 교수), 김우영(대구카톨릭대학교 수), 박태화(경북대 교수) 등 9명을 고문으로 이장백 박사(대안결핵협회 대구경북 지사장)를 명예회장으로 추대했다. 배지선 기자

부산 여불회 임원수련회

봉사 극대화 방향 모색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원선자)가 부산 여성 불자들의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찾기 위한 특별한 임원 수련법회를 연다.

부산여성불자회는 8월 19일, 20일 단양 비사라는 작은 사찰에서 임원수련회를 갖고 부산여성불자들의 봉사방향, 불교와 환경문제, 임원의 자세 등에 대한 미니 워크숍을 연다. 30명의 임원들이 10명의 소모임으로 나뉘어 주제별로 토론을 벌이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취합, 부산불교여성불자회의 향후 활동 방향을 잡아 나갈 방침이다.

부산여성불자들의 원불교, 천주교 등 타종교 여성들과의 교류를 통한 봉사의 극대화 뿐 아니라 회원들의 전문성을 살린 봉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해바다 갯벌 체험을 통해 환경을 위한 여성불자들의 행동 지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향후 부산여성불자들의 실천을 이끌 수 있도록 캠페인 활동을 꾸준히 벌여 나갈 계획이다.

천미희 기자

대불어 서해바다 갯벌체험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회장 정예)는 8월 20-22일, '배낭메고 세계문화유산 찾아서' 두 번째 행사로 고인돌을 찾아 떠난다. 선운사를 비롯한 전라남·북도 주요 사찰과 고인돌을 통해 한반도 고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서해바다 갯벌 체험을 통해 갯벌과 생명체와의 연관성을 배우며 생명의 소중함도 함께 느낀다. 체험은 3학년 이상의 초등학교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051)864-4569

천미희 기자

戒·定·慧 三學의 정신을 세운다

제 10회 선우논강(주제: 수행과 계율)에 초대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의지하고 계율에 의지하라. 그러면 승가는 쇠퇴하지 않고 번영할 것이다" 계율은 선정과 지혜를 성취하는 사다리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계율은 무시되거나 형식주의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율이 바로 서야 수행이 증장됩니다. 계율과 수행이 바로 서야 승가가 도덕적 신뢰와 존경을 받습니다.

선우도량에서는 수행과 계율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뜻있는 탁마의 법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제방 스님들의 많은 동참을 원합니다.

■ 주 제	수행과 계율
■ 논 주	혜능 스님 (해인총림 율원장)
■ 일 시	불기 2548년 9월 3일(금) 오후 2시 ~ 9시
■ 장 소	지리산 실상사
■ 대 상	조계종 출가대중
■ 문 의	02)3676-4060 (선우도량 사무실) 017-345-7382 (김문경 간사) 카페 : 다음(daum), 선우도량

* 논강은 기존의 방식과 달리 합니다. 먼저 논주 혜능 스님이 3시간 동안의 집중강의를 통하여 내용과 논지를 충분히 전달합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활발한 토론을 펼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선우도량
공동대표 철오·현각